

담양군,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28일까지 온라인 접수 또는 내달 4일까지 읍면 사무소 방문 현장 접수
내달 말 지급될 예정...지원 금액은 가구별 50만원, 1회 현금으로 지원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올해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3월 1일 기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의 가구 중 2019~2020년 대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복지포(http://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된다.
특히 군에서는 현장접수 신청기간 방문이 어려운 신청자나 현장접수 기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4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지원금은 소득기준, 재산조사, 소득감소 확인, 중복사업 조회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별 50만원, 1회 현금으로 지원한다.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소규모농가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자는 차

액(2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생계위기 대학생은 교육부의 근로장학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박종영기자



강진군,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미술치료 교육

상인 110명 참여, 자화상 그리기 등 통한 마음 치유 호평

강진군이 강진읍상가 상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미술치료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4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110명의 상인이 총 10회에 걸쳐 참여한 미술치료 교육은 지난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넥스트로컬 청년창업 사업과 연계해 강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과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는 상인이 늘어남에 따라 자화상 그리기, 연꽃만들기 등의 미술 교육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교육생간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아버지날을 기념해 그리스어로 ‘신의 꽃’을 의미하는 카네이션 만들기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상인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과는 다르게 신기하고 새로운 체험이었다.”며 “장사도 안되고 많이 우울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너무 기분 좋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된 미술치료가 강진읍상가 상인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상인교육의 첫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더 많은 상인들이 심리·정서적 안정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요고 참 재미나네” 나주 남평읍, 뇌 건강 키트지원 호응

치매 고위험군 홀몸노인 대상 복지특화사업
인지능력 향상 위한 치매 교구 꾸러미 지원

나주시 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치매 고위험군 홀몸노인을 위한 복지특화사업으로 ‘뇌 건강지킴이 키트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뇌 건강 키트는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콩나물 재배 키트를 비롯해 퍼즐(펜토미노·칠교놀이), 기억 건강놀이 책자 등 각종 놀이 교구로 구성됐다.
남평읍 지사협은 당초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 치매 예방을 위한 뇌 블루 프로그램을 추진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로 대면이 어려워져 뇌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키트 지원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이날 위원들은 40여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즉석 즉, 생필품 등과 함께 키트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점검했다.
광이마을에 거주하는 77세 박 모 어르신은 “하루 내 텔레비전만 보고 지냈던 무료한 일상에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난 놀이감이 생겨 즐겁다”며 “코로나19로 사람 만날 일이 줄어 마음이 울적했던 마음이 사라졌다”고 환속했다.



신병철 남평읍장은 “외부 활동 프로그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뇌 건강 키트가 치매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돌봄 공백을 해소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무안 망운면,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펼쳐

103세 어르신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무안군 망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함께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위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 등 10여명의 봉사자들은 고령의 독거노인 전모(103세) 어르신 댁에 방문해 비위생적인 쥐구멍 제거를 위한 긴급 벽막이 공사를 실시했으며, 해진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 안 곳곳을 청소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준비해 간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이웃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조영희 망운면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망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밀반찬 전달, 긴급구호비 지원 등 특화사업인 더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